

[하용조 목사의 짧은묵상]

사탄의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의 증상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약 4:7).
사탄의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의 증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번째, 강박 관념입니다.
끊임없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두번째, 만성적인 두려움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두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밤에도 낮에도
항상 불안해 하고 무서워 합니다.

세번째, 지나친 성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성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귀신들린 것입니다.

네번째, 항상 무언가에 쫓기고 있습니다.
도무지 안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강한 증오감, 반항심, 분노, 쓴 뿌리들입니다.

여섯째, 잘못된 비성경적인 신념들입니다.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
축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믿음처럼 가지고 있는 것도
사탄의 영향권 아래 있는 증거입니다.

일곱째, 해명이 안되는 신체적인 증상들입니다.
원인이 없는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덟째, 주목을 받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입니다.
항상 스타가 돼야 합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화제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아홉번째, 변덕스러운 감정입니다.

열번째, 치유공동체, 성령공동체로부터
떠나고 싶은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이름을
부르면서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 사탄아!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날지어다!"

- 하용조